

공정·공개·공평·공유를 바탕으로 투명한 협회 만들어가는 대전·세종·충남도회

전국 시·도회는 지난 2014년 개최된 총회를 통해 제9대 시·도회장을 새롭게 구성하고 각 지역에서 기계설비건설 업계 및 협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국 시·도회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듣는 코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호에는 박육순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장(주일이공사 대표)로부터 대전·세종·충남도회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계획을 들었다. 마당발로 통하는 박육순 회장은 대전광역시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며 기계설비건설업계 및 협회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공정·공개·공평·공유의 4원칙을 바탕으로 회원사가 주인이 되는 투명한 협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편집자 주]

대전·세종·충남도회 박육순 회장



회장으로서 활동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를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장으로 선택하여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사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에 취임한 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 10여년 간 우리 시·도회 운영위원과 부회장을 역임하며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공정·공개·공평·공유의 네가지 원칙에 의해 회원사가 주인이 되는 투명한 협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협회를 통해 회원사가 하나되는 끈끈한 결속과 화합에도 힘썼습니다.

우리 시·도회는 대전, 세종, 충남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 분포되어 있는 640여 기계설비 및 가스시공 업체 중 490여개 업체가 우리 시·도회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로 인해 화합을 이루기 쉽지 않은 여건이어서 저는 소외된 지역, 소규모 회원사 등 지금까지 혜택을 적게 받았던 곳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우리협회는 기성실적 2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 정도의 큰 규모 업체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수이지만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규모 회원사를 위한 배려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사 간담회를 대전권과 내포권, 천안·아산권, 서산·당진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도 대전 사무처를 벗어나 4개 권역에서 골고루 개최하다 보니 섬김을 받는 것 같아 소외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장학금도 그동안 대전지역 위주로 지원했던 것에서 지금은

충남, 세종 지역 소재의 대학 및 고등학교에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균형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사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회원사 임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정, 공평, 공유의 추진사업을 전 회원사에게 공개함으로써 가족같은 분위기로 투명한 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 때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사들이 지금은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실 때 큰 힘이 납니다.

최근들어 우리 시·도회는 회원사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업체 이동 및 신규 면허 등록이 많았던 것도 있지만 운영위원을 비롯하여 회원사들이 미가입 업체에 회원가입 독려와 함께 사무처의 활발한 활동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 세종, 충남지역의 건설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발주물량도 예산 부족으로 급격히 줄어든데다 국토의 중간 지점인 지역 특성 상 전국에서 접근이 쉬워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마저도 타 지역 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표준품셈 단가 하락 등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여려가지 제도 및 관행으로 인해 우리 시·도회 회원사의 채산성은 날로 악화되어 개점 휴업 상태인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업계의 수주 환경 개선이 급선무여서 우리 시·도회는 지자체를 비롯한 발주관서에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종전 45%에서 65%로 끌어올렸으며 대전광역시로부터 하도급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구

두 약속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대전광역시 2대 명예시장(2015.5.4~2015.10.30)을 역임하면서 우리 기계설비건설업계와 협회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장에 취임하여 임기의 반이 지나는 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노력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이 없었더라면 그동안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원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람은 사람을 알고 또 알다가 죽는 다’는 신념으로 회원사 한 분, 한 분을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며 회원사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원도급 확대

우리 시·도회 역대 회장님들께서 원도급 공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발주관서에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요청한 결과 오래 전부터 시·도 및 교육청, 연구단지 등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로부터 압력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시·도회는 수시로 발주처를 방문하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충청남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분리발주를 적극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몇 지자체에서는 하도급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전광역시에는 하도급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지난 해 5월부터 10월까지 2대 대전광역시 명예시장으로 활동하면서 대전광역시에 하도급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외지업체의 활발한 진출로 정작 우리 시·도회 회원사들에게는 그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자체에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요청한 결과 기존의 45%에서 65%로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본회와 연대하여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

표준품셈의 지속적인 하락은 우리업계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황광연 전임 회장님께서서는 본회에 표준품셈 하락의 심각성을 적극 건의하고 본회가 표준품셈 하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회는 본회와 연대하여 국토부 등 표준품셈을 관장하는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해 말 개정된 표준품셈에서 기계설비부문의 표준품셈 하락이 최소화 되었습니다. 지난 해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도 우리 시·도회는 본회와 함께 정상적인 품셈이 적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기계설비업계 및 협회 위상 강화

우리 시·도회는 그동안 우수업체에 대한 대전시장 표창이 1~2개 정도였으나 제가 회장에 취임하면서부터는 7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또 국회의원 표창도 신설되는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포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도회가 대전·세종·충남지역에 등록된 협·단체 중 비중있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을만큼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

는 제가 대전시 명예시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명예시장에서 물러났지만 우리업계와 협회의 위상 향상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넷째, 기계설비 발전을 위한 3개 단체 유대 강화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회는 대전·충청지역 기계설비연합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대한설비공학회 대전·충청지회, 한국설비기술협회 대전·충청지회)를 구성하여 3개 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단합된 힘을 모으는 구심체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회는 각 단체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지원, 송년회 개최 등을 통해 각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도출된 애로사항을 지자체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분리주 확대, 지역 기계설비건설업체 참여비를 확대 등 기계설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도회는 연합회를 기계설비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모범 건설단체로 이끌겠습니다.

다섯째, 기술·기능인력 양성 추진

기능인력의 고령화 및 감소에 따라 우리 시·도회 회원사는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회는 회원사의 인력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개 대학(한밭대학교, 우송정보대학, 공주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아산캠퍼스·홍성캠퍼스)과 3개 고등학교(천안공고, 충남기계공고, 세종하이텍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산학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전·세종·충남지역 기계설비분야 기술인력 양성

방향에 대한 공동 협의와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 공동 개발, 회원사 임직원에게 위탁교육 실시 등입니다.

또한 우리 시·도회는 양질의 기술·기능인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학교는 산학협력 체결 대학을 포함하여 총 9개 대학 및 고등학교에 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지역도 대전 지역 학교에 편중되었던 것을 충남, 세종 지역으로 확대하여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홍성캠퍼스, 그리고 세종하이텍고등학교 등에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째, 회원사 화합을 위한 노력

대전, 세종, 충남 3개 지자체가 모여 이루어진 우리 시·도회는 회원사간 소통과 끈끈한 결속을 위해 체련대회를 비롯하여 문화유적 탐방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및 회원사 간담회도 권역별로 순회하며 실시하는 등 회원사와의 소통은 물론 협회 사업이 각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사 임직원의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을 신설하여 2014년에는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 각각 2명씩 총 6명을 지원하였고 지난 해에는 각각 3명씩 총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회원사 임직원 자녀 장학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회원사에게 한 말씀

우리 기계설비는 사회적 위상이 낮은 편입니다. 대학교에서는 기계, 전기, 토목 순이지만 졸업해서 사회에 나오면 토목, 전기, 기계 순으로 하락합

니다. 이렇게 기계설비가 사회에서 하락하는 이유는 대부분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이기 때문입니다.

전기 쪽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큰 빌딩을 갖는 등 성공한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기계설비업계는 전기에 비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업계의 많은 회원사가 큰 빌딩도 갖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또 자손 대대로 기계설비업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려면 공사금액을 잘 받고 이윤이 남는 공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공사는 그 기업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업계의 공멸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가수주와 과당경쟁이 근절되어야만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품토가 정착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애 최고의 목표는 건축물과 생산시설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기계설비가 자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비전이 큰 업종으로 인식되도록 우리의 위상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기계설비와 협회의 위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육순 회장은

- 1957년생
- 우송공업대학 인텔리전트설비계열 졸업
- 한밭대학교 최고설비경영자과정 수료
- 대전·충남도회 제5대, 제6대 운영위원
- 대전·충남도회 제7대, 제8대 부회장
- 대전광역시 2대(2015.5.4~10.30) 명예시장
- 現 (주)일이공사 대표이사
- 現 대전·세종·충남도회 제9대 회장
-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 대전광역시장 표창장
- 대한설비건설협회장 공로패



대전·세종·충남지역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업무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전·세종·충남도회 사무처 직원들 (왼쪽부터 안예지 직원, 유현철 사무처장, 양경수 과장)

지난 2014년 10월호부터 게재된 시·도회장 인터뷰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도회 장님과 시·도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